

대책을 되새기면서 재가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최근 UAE의 바라카 1호기의 준공이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더불어, 점차 해체 단계에 들어서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은 물론, 노후화 및 해체에 대한 대책이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양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해체 관련 최신 현황 및 지식을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의 기회보다도, 한일 양측의 원자력산업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국민 수용성 제고가 원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 키오 타카하시(Akio Takahashi)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 이사장님, 강재열 한국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원전 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내일(5.9) 이 곳 도쿄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십 년 간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일 원산회의가 「원전 안전·해체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원전 산업이 직면한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은 경제성, 안정적



전력 공급, 온실가스 감축 등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세계 에너지원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국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정지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로 단계적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위스는 '34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정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1년 전인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안전·환경 및 국민 수용성을 중시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여 원전·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원전분야 당면 현안 및 협력 필요성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원전 산업도 안전성 강화, 고준위 방폐물 처분·관리, 해체 등과 같은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11년 후쿠시마 사태, 최근 한국의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양국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양국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원전 산업 및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모두에게 원전 해체 산업의 중요성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년대까지 12개의 원전이 해체 절차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7기의 영구 정지 원전 중 이미 1기의 해체가 완료되었고, 현재 4기의 해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의 원전 산업계가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협력의 여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산닝 요레바 몬쥬노 치에*”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三人寄れば文殊の知恵(さんにんよればもんじゅのちえ)”: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비슷한 의미로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두 속담 모두 “함께 협력하면 혼자 하는 것 보다 낫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양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공통의 현안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 원산회의와 일본 원산회의 간의 협력은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73년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총 34회의 공동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등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도쿄 지부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의 원전 안전강화 및 해체 추진 현황,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안전규제와 원전 재가동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한 포럼이 양국의 원

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해주신 한·일 원산회의

와 참석해주신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감에 직접 대응, 안전 문제 착실하게 처리”

호사카 신(保阪伸)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차장

오늘 한·일 원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규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가운데 본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인접한 국가로서, 자국의 자원 부족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동지방의 자원에 의존하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추진, 셰일 혁명 등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을 잘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잠시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재생

먼저, 후쿠시마의 부흥과 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은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의 부흥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오염수 대책은 경제산업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후쿠시마의 부흥과 재생을 위하여 일본 정부도 전면에 나서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전력으로 부응코자 합니다.

도쿄전력의 마사다 부사장이 발표할 내용이지만, 해체와 오염수 대책에 있어서 원자로 내 상황에 대한 진전과 함께 동토벽 등 중층적인 대책을 통한 오염수 발생량 대폭 저감 등 진행 업무의 효과가 착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 부지 중 약 96%에 달하는